

■ 결혼과 여성의 지위 - 주부를 슬프게 하는 것

산만한 신경과 토막난 시간, 지적능력의 고갈

자기 일을 갖고 싶다는 바람이 있는 주부들은 흔히 '아이 다 키워놓고 나서 얼마든지 나 일을 하라'는 충고를 듣는다. 아이를 기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서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라는 찬사와 함께 오는 충고다. 그리고 주부로 있는 동안에 미래의 자기일을 준비하라고 한다.

이론상으로는 참으로 합리적인 처방이다. 그러나 주부생활을 경험해 본 여자들은 이런 충고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자들은 '무슨 일인가를 하려면 단 몇시간이라도 집을 떠나라'고 말할 것이다. 집에 있으면서 집중력이 요구되는 무슨 일인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체했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단 하루라도 집을 보는 주부의 생활을 해본다면 그들도 '집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라'는 충고를 그만둘 수 있을 지 모르겠다.

화제의 연극 <자기만의 방>에는 여자들에게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는 주인공의 설교를 반박하는 대사가 있다.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면 전부 내 집이야"라는 대사다. 관객들은 이 대사를 듣고는 웃는다. 가족들이 다 빠져나간 집이 전부 주부의 차지가 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 집은 집안일을 하는 공간이지 주부가 하고픈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잡다한 일로 머리 속은 산더미 시간 주어져도 자기일 못해

가족들이 선물처럼 던져주고 간 일감을 해치우고 오전 TV를 시청하면서 잠시 쉴라치면 전화

벨 울리고 잡상인 찾아오고, 공과금 받으러 오고, 그밖에 해야 할 일들 생각나고... 주부의 머릿속은 붐벼 있는 상태다.

정말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 또 정말 하고픈 일이 있어서 작정을 하고 책상 앞에 앉을 수도 있다. 눈에 보이는 일거리로부터 빠져나오는 데 성공한 주부라 하더라도 자기 머리속으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하기 마련이다.

최근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졌던 세 명의 대학 동창생들이 결혼 현실에 부딪쳐 깨어나는 과정을 소상히 그린 소설이다. 이 중 가장 착하고 가장 여성스러웠기에 가장 비극적인 결말-자살을 해야 했던 여자 '영선'은 자기 일을 가지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그가 실패한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복잡한 주부의 머리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시나리오를 쓰려고 했던 영선은 책상에 앉았지만 아파트 관리비 납부 마감일을 넘기지는 않았는지, 내일 아이가 학교에 가지고 갈 준비물은 다 챙겼는지, 누구의 생일에는 무엇을 선물해야 하는지 등등의 생각들이 떠올라 집중할 수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늦깎이 주부학생의 슬픔
집중 불능, 요약 불능

주부들에게 이런 체험은 공통적이다. 사람 사는 것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능력을 요구하는 주부일은 주부에게 긴 시간을 주지 않고 집중력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전문적인 기량을 준비하게 하지 않는다. 주부생활이 오래되는 동안 주부들의 시간은 토막나고 주의력은 산만해지기 십상이다. 그래도 과거에 일류대학, 일류학과를 졸업했다는 주부 중에서 10년만에 조간신문도 안보게 됐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많은 사람 앞에서 한마디 말이라도 할라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린다는 여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누가 이들을 '왕년에 날렸던 여자'라고 믿어줄 것인가?

서른아홉의 나이, 주부생활 10년만에 대학원 공부를 시작한 주부 씨씨는 이런 현상을 절감해야 했던 사람이다. 주부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베스트 셀러로 등장하는 책은 거의 다 섭렵하면서 꽤 유식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했던 씨씨지만 강의시간 준비를 하기 위해 책을 앞에 놓고는 심한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고 한다. 영어원서를 읽다 보면 몇번 째 같은 페이지를 읽고 있는가 하면 한글책도 분명히 다 읽었는데 발제를 위해 요약해 보려고 하면 머리속이 하얘지더라는 것.

대학시절까지 수재 소리를 들었던 그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체험이었다. 자신의 주부생활 동안 집중해서 기억하고 요약하는 능력, 한마디로 지적인 능력이 고갈됐음을 인정해야 했던 것이다. 그의 석사학위를 따는 과정은 젊은 학생들과는 다르게 잃어버린 지적인 능력을 되찾기 위한 자신의 투쟁이기도 했다.

또 많은 여성문인들이 문단에 이름만 올려놓은 채 작품을 쓰지 못하는 현상도 여자들이 가사일을 맡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소설로 데뷔했던 소설가 '씨'는 "글을 쓰고 싶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여자 후배들에게 충고를 건네기도 했다. 많은 여자 소설가들의 작품이 가족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고 스케일이 큰 역사소설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대작들이 주로 남자 작가들에게서 나오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하고 그것도 오랜 시간 그 한가지만을 생각해야 하는 긴 소설의 형식 자체가 가정을 가진 여자들에게 힘에 부러운 형식인 것이

다. 자기 소설, 그 한가지만을 생각하면서 가사일과 가족관리의 부담을 아예 면제 받고 자기 일에만 전념하는 남자 작가들과 여자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출발선이 불공평한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직장여성의 한계
-마음은 콩밭

시간을 토막내고 타인을 향해 신경을 분산시키고 노동의 결과가 축적되지 못하는 주부일의 관성은 직장을 가진 여자들의 생활 속으로도 깊게 파고들어와 있다. 많은 직장에서는 여성 인력의 비효율성을 들먹여 여자들의 사회적 성공에 제한을 가한다. 여자들이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이지만 실제로 그런 면이 있다. 지금은 성공한 여성 측에 드는 여성들이 과거의 육아부담을 회고하곤 한다. 아기를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출근해서는 회사에서 집으로 1시간 마다 전화를 해야 했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장을 봐 두는 직장여성들도 있다. 또 퇴근 무렵이면 여직원들의 퇴근은 남자들보다 더 빠른 게 보통이고 동네 어귀에 들어서는 직장여성들의 손에 시장을 본 비닐봉지가 여러 개 들려 있는 풍경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직장에서 집으로 수시로 전화하고 퇴근 후 귀가길에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외의 일을 생각해야 했을 것이다. 아이가 잘 있나?, 울지는 않나?, 약은 먹었나? 또 오늘 반찬은 무엇을 해 먹나? 등등...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낸 여성들 중에 집 문을 나서는 순간 집안일을 완전히 잊는 것을 철칙으로 삼은 여성들이 많다.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남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직장인으로서 남자라면 하지 않을 '땀생각'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것이다.

입지, 약관, 불혹,
여자는 왜 불가능한가?

남자의 나이에는 이름이 붙어 있다. 15세 입지요, 20은 약관이라 하고 40은 불혹이라고 한다. 연령감각이 한참 다를 때에 나온 말이지만 그 요지는 청년기에 이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 마흔 살에는 흔들림이 없는 자기세계를 완성케 된다는 것이다. 남자에겐 한가지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전념해서 성취를 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주기의 모델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라면 어떻게? 입지라는 말에 걸맞는 모델은 여자의 연령기에는 없는 것 같다. 결혼하기 전 20대의 꿈이 그나마 가까운 말이 될까? 이나마도 30세 쯤의 여자에겐 사치스러운 말이다. 30대면 집안일로 한창 바쁜 나이, 20대에 어렵듯이 품고 있었던 꿈조차도 꼭꼭 숨겨두었다가, 육아의 부담이 조금 느슨해지려는 시간인 40세에 이르면 뒤늦게 뜻을 세우기 위해 방황의 시간을 맞는다. 그동안 인생의 한창기인 30대의 시간은 토막나 버렸고 입지의 필수 요건인 집중력은 약화됐다. 여자의 신경줄은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간 실핏줄 마냥 흩어져 있고 자신감은 쪼그라들었다.

똑같은 나이 30에 남자는 자기 뜻을 이루는 데 한창인데 여자는 희미한 꿈마저도 저버리며, 똑같은 나이 40에 남자는 우뚝 서는데 여자는 방황을 시작하며 사회의 초년병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마치 어른과 어린아이의 조화처럼, 그리고 프로와 아마추어의 상부상조처럼, 남녀의 인생은 꼭 호흡을 잘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여자도 자기인생을 살고픈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면, <김효선 기자>